

[2024-101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4. 10.15(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LA한국문화원, <2024 KAFA미술상> 시상식 개최
- 비디오 아티스트 최희현 씨 수상 영예, 10월 21일 문화원에서 열려



- ▶ 행사명 : 2024년도 KAFA미술상 시상식 및 작가 소개
- ▶ 일 시 : 2024.10.21(월) 11:30am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2층 /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수상작가 : 최희현(Heehyun Choi)
- ▶ 주 최 : 카파미술재단(Korean Arts Foundation of America), LA한국문화원
-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KAFA 323-253-5453 회장 Gloria D. Lee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10월 21일(월) 오전 11:30에 LA한국문화원 2층에서 카파미술재단(Korean Arts Foundation of America/KAFA, 회장 글로리아 리)과 함께 <2024년도 KAFA미술상> 시상식과 작가 소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예의 수상자로는 영화와 비디오 아티스트인 최희현 씨가 선정됐다. 최희현 작가는 한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실험영화를 만드는 영상작가다. 영사된 이미지에서 발견되는 물성과 가상성의 뒤섞임, 카메라 프레임 밖으로 감추어지는 것들, 그리고 언제나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보기(seeing)’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 서강대와 캘아츠(CalArts)를 졸업했으며, 영상작품이 에딘버러국제영화제, 25FPS영화제, 이미지스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등에서 상영됐고, 앤아버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KAFA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1989년 미술애호가들과 컬렉터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1992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명씩 당선자를 선정했으며 1996년 이후에는 2년에 한번 카파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까지 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수상자는 \$20,000 상금과 더불어 차년도에 LA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기회가 주어진다.

KAFA에 따르면 선정심사위원은 미국 미술계에 영향력 있는 평론가 큐레이터 등 3명에게 위촉하였고, 심사기준은 작품의 창작 예술성, 수상이 작가의 경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작가의 활동경력, 성취업적, 미래의 가능성, 미술계에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공헌 발전 등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심사위원들은 버지니아 문(LACMA 한국미술 큐레이터), 자밀라 제임스(시카고 현대미술관 시니어 큐레이터), 파블로 호세 라미레즈(해머 뮤지엄 큐레이터)가 참여했다

카파 미술상의 역대 수상자들은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서도호(1998), 이미래(2022), 곽영준(2020), 로버트 리(2018), 제니퍼 문(2016), 올가 나(2014), 진 신(2012), 이가경(2010), 이재이(2008), 임원주(2006), 제나 김(2004), 마리아 박(2002), 박정미(2000), 민연희(1996), 앨리스 박 스퍼(1995), 바이런 김(1994), 조숙진(1993) 남윤동(1992) 등이 있고, 역대 수상작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kafa.us 을 통해보면 알 수 있다. /끝/

심사평

3명의 심사위원들은 67명의 경쟁력 있는 지원자들 중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관점에서의 열띤 토론을 거쳐 최희현(Heehyun Choi)을 선정하였다. 영화 및 비디오 아티스트인 최희현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영화계 자체에 내재적으로 수용된 사회 구조를 퍼포먼스를 통해 탐구하며 종종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그녀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와 역사를 활용하여 안무에 영감을 불어넣는다. 최 작가의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판을 세련되게 다루어 한국 여성 영화감독으로서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영화와 비디오를 통해 표현되는 아이디어가 더욱 풍부해지며, 한국 여성 영화감독들의 성장하는 역사에 확실한 흔적을 남길 것이라 확신한다.

작가의 변

나의 무빙이미지 작업은 영화의 형식적, 철학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가시화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과정이다. 필름 또는 디지털 영상 파일, 카메라와 조명기, 촬영, 편집 소프트웨어, 후반작업, 프로젝터, 그리고 상영관 환경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체계적이고 특징적인 매체적 요소들간의 상호관계를 주목하고 비튼다. 이러한 탐구 과정은 영사된 이미지에서 발견되는 물질성과 가상성의 뒤섞임, 카메라프레임 밖으로 감추어지는 것들, 그리고 언제나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보기seeing’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었다. 작업에 따라 16mm와 Super8 필름, 아날로그비디오, 3D 애니메이션, 데스크탑 화면녹화 방식이 사용되며 영상의 러닝타임동안 이미지의 차원을 끊임없이 확장한다. 또한 나의 작업은 스스로를 카메라 앞뒤의 퍼포머로 위치시킴으로써 아시아 여성 영화 제작자로서의 정치적, 역사적 위치와 역할을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작가이력

최희현은 한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실험영화를 만드는 영상 작가이다. 영사된 이미지에서 발견되는 물성과 가상성의 뒤섞임, 카메라 프레임 밖으로 감추어지는 것들, 그리고 언제나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보기seeing’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 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와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더 아트 (CalArts) 필름앤비디오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에딘버러국제영화제, 25FPS 영화제, 이미지스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에서 상영하였고 앤아버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였다. WNDX x NIMAC 무빙이미지 어워드, 알재단(AHL Foundation) 아티스트 펠로십, Alison Doerner 여성영화인 펀드, 앤디워홀재단 및 Los Angeles Contemporary Exhibitions (LACE)의 라이트닝 펀드(The Lightning Fund)를 수상하였다.